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부여 받은 총회장 임기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목의 도전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변화에 대한 결단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와 화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지난달에 언급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라는 복 받은 땅에서 살면서 쉽게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세상에 자신의 영토 안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그런 면에서 복 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캐나다도 남쪽에 있는 이웃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나라를 몇 쪽으로 갈라놓고 영원한 상처를 남긴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캐나다가 여러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영토 안에서 전쟁을 겪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바로 이순간에도 세상 많은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소위 명분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분쟁지역에 파병되어 수고하는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양심을 병들게 하고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주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그림자는 분쟁이 끝이 난 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드러져 있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치유와 화해를 위한 진정한 싸움이 비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해와 거짓된 정의, 피할 수 없는 미움과 분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공홍의 부재 등이 뒤에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이 뒤에 남아 질병과 같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

된 생각과 사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복잡한 형태의 분쟁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쟁을 제한된 지면에 다 거론할 수 없으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할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혼돈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버리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치안을 회복시켜서 결국 지구촌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땅에는 오늘도 전면전 형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전쟁은 종전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남긴 전쟁을 치른 다음 1953년에 양쪽에서 휴전에 합의했을 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남북은 엄청난 분량의 무기와 탄약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극단의 호전성과 증오를 쏟아왔습니다. 200만이 넘는 병력이 대치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대단히 숨막히는 상황이어서 피부에 느껴질 정도입니다. 백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의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분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평화적인 해결책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정도로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만들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0년의 수고는 3일의 전쟁을 통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화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당신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동참할 시간입니다.